# 왕성한 기운과 무기력의 양극단 형세

해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달마산, 대륜산, 두륜산, 덕룡산, 만덕산 등 신령스러운 주산(主山)들이 포진해 있는 독특한 곳이다. 달마산 전경

##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 땅의 숨결을 따라 〈20〉

■ 해남의 형세

해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독특하고 신령스러운 형태의 주산(主山)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내룡(來龍) 또한 역동적으로 위이굴곡하고 기복분주한 형세다. 평지낙맥(平地落脈)으로 혈을 맺는 이치는 같지만 생룡(生龍)이 낙맥한 이후의 모습을 보면, 기운이 왕성하여 득력한 모습과 기운을 얻지 못하여 병지처럼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의 양극단으로 드러나고 있다.

마치 하늘을 날던 거대한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등지느러미와 갈기를 세우고 군무쟁검(群舞爭劍)으로 천작과 복록의 서열을 가르는 의식처럼 달마산의 도솔봉을 필두로 대둔산, 두륜산, 덕룡산, 석문산, 만덕산이 천라지망(天羅之網)으로 일자진(一字陣)을 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천시원의 형국이다.

하늘의 별자리를 동양에서는 본래 옥황상제를 의미하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옥황상제의 침궁인 자미원, 하늘의 법과 행정을 관장하는 태미원, 일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천시원의 3원과 북방현무칠수과 남방주작칠수, 그리고 동방창룡칠수와 서방백호칠수를 합한 28수가 있다. 천시원은 본래 원시수렵사회의 사냥터와 노획품을 분배하고 그것을 다시 물물교환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터로 나누어지는데, 완도가 시장이라면, 해남은 사냥터에 해당하는 수렵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대간을 이루고 있는 달마산도솔봉에서 만덕산에 걸쳐 기치창검(旗幟槍劍)과 사냥그물이 하늘 높이 세워져있다. 이에 놀라 헛발을 내디딘 황소의 앞무릎이 부러지고(읍내 우슬재), 그 살기에 새들은 황급히 날아오르며(현산면 비조산), 빈 수레가 허공을 가르고(송지면 가공산), 겁 많은 노루새끼는 이미 그물에 걸려 어미를 향해 울부짖고 있는(송지면 노루목), 닭모가지가 줄줄이 그물에 걸려 나뒹굴고(북평면 닭골재) 있는 형상이다. 사냥으로 배부른 부자는 천막 안에 숨고, 병풍 뒤에 꼭꼭 숨어서 석숭(石崇)을 꿈꾸는 모양의 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해남의 대체적인 형세이다. 참으로 기이하고 오묘한 이치가 숨어있는 형세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

### 달마·대륜·두륜산 등 一字포진

이러한 지세 탓인지 마치 사냥꾼과 사냥감의 관계처럼 예전의 해남은 주종관계로서의 반상(班常)이 극명하게 세습되었다. 노예처럼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서민들의 피폐한 살림살이와는 상관없이 명문세가와 토반들의 재화는 날로 늘어났다. 기름진 농토는 물론이고 명당이 있을 만한 산야까지도 그들이 독차지 하였다.

평생을 천시원의 높은 담장 안에 갇혀서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았기 때문에 바깥세상에 대한 정보가 어두워 시야가 좁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면서 배타적인 지역정서가 형성되었다. 그러면서도 토반들은 이름난 지사를 돈과 권력으로 불러, 명당에 묘를 쓰고 집을 짓는 것으로도 부족해 그들과 혈연을 맺고, 다시 풍수지리에 관한 가문의 비급을 만들게 하여 자손대대로 전수시키면서 집안의 재산과 세도를 늘려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 근래에 그들의 전횡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그들의 감성과 인정이 개선되었다기보다는 간척사업으로 수구가 견고하게 고쳐져서 풍수적으로 흠이 없어졌고, 각종개발과 도로확충으로 지맥이 끊기고 혈처가 훼손되면서 땅기운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시대가 급속도로 변하는 만큼 땅기운 역시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은 선천 중원갑자의 전제군주시대가 아니라, 반상이 허물어진 후천 하원갑자의 민주화된 주민자치시대의 평등사회이다. 천시원은 본래 사냥꾼인 제왕을 비롯한 지배세력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냥의 몰이꾼으로 징발된 서민들이 사냥이 끝난 다음에 산과 바다를 이웃하여 척박한 땅을 일구어 옥토로 가꾸면서 살아가는 곳이다. 따라서 해남은 후천 하원갑자를 염두에 두고 하늘이 예비한 복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 시대변화따라 흥과 복 바뀌어

다만 과거 시대에 토반들이 수백년간 권세와 영화를 누린 것은 석문(石門)을 지켰기 때문이며, 오늘의 개방된 공간에 평등사회의 복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읍내의 수구막이 이면서 해남 땅의 수호신장인 관두산의 원형을 지키고, 또 지켜야 할 것이다.

/전종주 호남대 교수·한국 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 전라도 역사이야기

-월출산 도사 이중약과 고려 도교

## 옥소봉 아래 초당 짓고 도교·의술 연구 전념

흔히 유·불·도 3교라 불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유교와 불교에 비하여 도교의 요소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김가기와 최치원에서 조선시대의 김시습과 서경덕 등으로 계승되는 도맥(道脈)이 있었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이들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조선후기의 재야 지식인들이 내단(內丹)을 위주로 한 도교수련에 열심이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극소수의 사람들에 국한된 신앙이었고 일반인들에게 널리 유포되지는 못하였다. 때문에 유교를 강의한 서원이나 향교, 불교의 사찰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도교와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고려시대 특히 특히 12세기 전반기인 예종과 인종대에는 대규모의 도교사원인 복원궁(福源宮)이 건립되고 다수의 도사들이 활동하는 등 도교에 대한 신앙이 대단히 성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12세기 전반기 도교의 발전을 이끈 사람은 다름 아닌 월출산에서 도교수행을 하였던 이중약(李仲若)이었다.

월출산 전경

개경의 관료집안에서 태어난 이중약은 어려서부터 도교의 가르침을 좋아하였는데, 수행을 위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월출산 옥소봉 아래에 초당을 짓고 도교수행에 전념하였다. 그는 월출산의 정기를 받으며 내단수행을 하는 한편 의술 연구에도 정성을 쏟아 일가를 이루었다. 숙종 말년에 국왕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왕궁으로 불려간 그는 당시 태자로 있던 예종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예종이 왕위에 오른 후에는 왕실의 후원 하에 중국에 건너가 도교를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하였다. 중국에서 돌아온 후에 그는 국왕에게 건의하여 고려 사회에 도교를 널리 펴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중국의 도교사원을 본뜬 복원궁을 건립하여 고려 도교의 중심 도량으로 만들고 이곳에서 도교의례를 체계적으로 거행하게 하였다. 아울러 도사들을 양성하여 도교신앙을 일반에 널리 유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도교교단의 체제가 확립되고 도교가 단기간에 널리 퍼지게 되었지만 이런 상황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하였다. 이중약을 후원해 주었던 예종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권을 장악한 외척세력은 예종의 신임을 받던 신흥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변을 일으켰고, 이 와중에 이중약은 유배지에서 살해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과 같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 도교발전을 위한 정책도 더 이상 계승되지 못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그래도 왕실을 중심으로 재초(齋醮)의례가 행해지는 등 도교의 맥이 어느 정도 이어졌지만 성리학을 내세운 조선이 들어서면서 그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비록 그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지만 고려 중기에 도교를 진흥시키려 한 월출산 도사 이중약의 행적은 한국사상사의 특별한 한 장면으로서 기억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연식 목포대 교수

■ 전라도 방언 (19)

## "싸게 폴아볼라우"

훈민정음에 쓰였던 아래 '·'자는 후세에 그 음이 변하면서 대개 중앙어의 첫음절에서는 'ㅏ'로, 둘째 음절에서는 'ㅡ'로 변하다가 18세기 말엽에는 마침내 그 음가를 잃고 말았다([redacted]가을). 그런데 역사적으로 '·'모음을 가졌던 낱말이 전라도방언에서는 첫음절에서 'ㅗ'로 변한 것이 허다한데 여기에는 규칙이 있다. 즉 첫소리가 'ㅁ·ㅂ·ㅃ·ㅍ'일 경우에만 그렇다. '[redacted]〉몰(馬), [redacted]〉모실(村), [redacted]다〉몰다(卷), [redacted]다〉몱다(淸), [redacted]셔〉폴쎄, [redacted] 쥐 〉뽁 쥐 ,붑다〉붑다, [redacted]시〉포도시, [redacted]다〉뽈다, [redacted]〉폴, [redacted]다〉폴다, [redacted]독〉폴똑, [redacted]죽〉폿죽' 등. 그 까닭은 'ㅁ·ㅂ·ㅃ·ㅍ'등이 두 입술소리이므로 후행모음이 앞소리에 끌려 원순모음의 'ㅗ'로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경남의 서부, 전북의 남부지역에서도 나타나지만 전남은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된 점이 특징이다. 즉 전남은 전지역이 '파리→포리'라고 하지만 전북은 일부 지역에 한하고, 익산·완주·장수에서는 '퍼리'라 하여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전남방언에서는 "신을 붑지 마라. 싸게 폴아불라우. 폴쎄 틀려부렀다. 뽀시락장난 좀 허(하)지 말아야. 왜 뽀짝뽀짝 달라붙냐?"와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쓰인 것이다.

/이 돈 주 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골무꽃

꿀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식물로 산지 숲 속이나 흔히 철도변과 냇가 주변, 빈터 등에서 무리지어 자란다.

키는 30~40㎝내외 정도, 남부와 중부, 제주도에 걸쳐 분포하고 개화 시기는 6~7월이다. 꽃의 생김새가 바느질할 때 끼는 골무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 라규채 생태사진가